

새 정권 출범 초기 증시 강세…이재명 정부도 통할까

선거일 한달 후 코스피 9번 중 6번 올라
季 “코스피 5,000 시대 열자”에 기대감
전문가들 “불확실성 완화 주가 우호적”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인 4일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탔는 가운데 과거 9번의 대통령 선거 중 6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22년 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 한달 후 주가가 선거일 전날 대비 오른 경우는 6번이었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대선과 주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3.1%)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3.0%)을 비롯해 모두 6 차례 대선 이후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였다.

지수상승폭이 가장 커졌던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3대 대선으로 대선 이후 한 달 간 주가가 24.1% 급등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 때는 16.6% 올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1992년 14대 4.9%), 전두환 전 대통령(1981년 12대 2.1%) 때도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2년 16대 -10.3%), 이명박



코스피 오르고 환율 내리고

코스피가 2% 이상 오르며 2,770선을 넘긴 4일 서울 종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 일 대비 71.87포인트(2.66%) 오른 2,770.84로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 지수는 9.92포인트(1.34%) 오른 750.21로 마쳤다. 한편 오후 3시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369.5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 대통령(2007년 17대 -6.8%), 박근혜 전 대통령(2012년 18대 -0.3%) 때는 지수가 하락했다.

대선 1년 후를 기준으로 봐도 역시 6번은 상승

하고 3번은 하락했는데 노태우(92.4%), 김영삼(32.3%), 김대중(25.4%), 전두환(22.8%), 노무현(14.4%), 문재인(6.6%) 순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당선 후 1년간 코스피 지수가 36.8% 하락했다. 윤석열(-7.8%), 박근혜(-0.9%) 때도 약세였다.

/연합뉴스

보고서를 작성한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증승장에 대해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고려하면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선거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정책 기대보다는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미국발 관세 우려로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분위기다.

홍국증권은 ‘새 정부 출범과 시장의 기대’ 보고서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저평가된 한국 시장 가치 재평가 움직임이 (지수에) 강하게 반영 됐다”며 “역대 정부 출발 시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벨류에이션 수준에서 출발하는 최근 상황은 가치 회복을 표방하는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기대를 낳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식 투자는 증시 활성화 정책을 가장 주목할 것이고, (이 대통령이) 주주총회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조성될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

美 ‘50% 관세’ 현실로…엎친 데 덮친 韓철강 어쩌나

中 저가공세·국내 경기 침체 수요 하락
지난달 대미 수출 20.6% 감소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발 철의 장막’이 현실화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려면 50% 고율 관세를 내야 하는 국내 철강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수년간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 중국산 저가 철강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요 시장에서 국내 철강 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잃은 데다,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마저 쪼그라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품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철폐는 당장 새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에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은 1위(13.06%)로, 일본(11.45%), 중국(9.95%), 인도(8.01%), 멕시코(7.55%)를 앞섰다.

미국 입장에서도 철강 주요 수입 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16%), 중국(15.4%), 멕시코(12.9%)에 이어 4위(6.2%)를 차지했다.

한국 철강 업계로선 포기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의 진입 장벽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 2기는 이미 지난 3월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 수출은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다.

지난해 수출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감소 폭이 커졌지만,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대세계 철강 수출액이 26% 감소한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5월 대미 철강 수출은 20.6% 감소했다.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 벽이 높아진 것은 향후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업 체감경기 제조·비제조업 동반 상승

5월 CBSI 전월比 각 3.3p·2.7p ↑

6월 제조업 ‘불확실성’에 하락 전망

5월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체감경기가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제조업의 다음 달 전망은 오히려 하락해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4일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중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가 모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3일부터 21일까지 광주

·전남지역 601개 사업체 중 546개 업체(제조업 264개, 비제조업 28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지역 제조업 CBSI는 93.8로 전월 대비 3.3p 상승했다. 이는 제품재고(+3.3p)와 생산(+1.8p) 관련 지수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비제조업 역시 자금사정(+2.3p)과 재산성(+0.4p) 등이 호전되면서 CBSI가 93.3으로 전월보다 2.7p 올랐다.

반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비제조업체의 6월 전망지수는 93.1로 3.5p 상승하며 기대감을 이어갔지만 제조업체의 6월 전망지수는 89.8로 전월 조사 때보다 3.1p 하락했다.

5월 중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불확실한 경제상황’(23.7%)이었으며 ‘내수부진’(19.4%)과 ‘경쟁심화’(10.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월에 비해 ‘경쟁심화’(+6.6%p)와 ‘불확실한 경제상황’(+2.2%p)에 대한 응답 비중이 늘었다.

비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7.3%)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전월보다 비중이 3.1p 증가한 수치다. 이어 ‘인력난·인건비 상승’(19.5%), ‘불확실한 경제상황’(13.3%) 순이었다.

/정은슬 기자

콘진원,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지역예선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특수교육원, 네마블문화재단과 함께 ‘2025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지역예선을 이날 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약 1개월간 전국 17개 시

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정부 역량 강화와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해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소

통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지역예선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천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내달 11일까지 예선을 치르게 되며 지역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오는 9월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흥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본선 및 결선에 출전하게 된다.

/안태호 기자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고흥지사 061)832-6290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www.kjdaily.com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 062)650-2000

▶ 구독문의: 062)650-2022